

고규홍의 '나무 생각'



오래 지켜야 할 당산제와 당산나무

설 즈음, 적막하리만큼 고요했던 겨울 농촌이 한층 부산해진다.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설날이나 정월대보름 앞뒤에는 당산제 혹은 대동굿을 올릴 준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차츰 사라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당산제는 농촌 마을에서 아주 중요하게 치르는 연례행사다. 당산제는 대개 마을에 있는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 앞에서 지낸다. 당산제를 지내는 나무는 그래서 당산나무라고 부른다. 당산나무와 당산제는 농경문화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다.

마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서있는 의뎡스러운 큰 나무였다. 사람들은 꾀를 냈다. 하늘에 직접 소원을 빌기보다는 하늘에 닿아 있는 나무에게 소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더 낫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허공에 흐트러지지 않게 잘 모아 하늘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뿐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경외심까지 표현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렇게 나무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매개물로 삼았던 것이다. 덕이 높은 어른을 제주로 정하고, 추대된 제주는 몸을 정갈히 했으며 사람들은 정성껏 제수를 차렸다. 그리고 설 즈음의 어느 날, 나무 앞에 모두 한 마음으로 모였다.

나무를 사람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물로 여기고 나무를 숭배하기로는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다. 서양 게르만 민족 역시 농경을 주로 하던 시절에 나무를 신(神)적인 존재로 숭배했다. 영국의 대표적 인류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는 인류학의 고전인 그의 걸작 '황금가지'에

에 아예 '나무 숭배'라는 중량감 있는 접터를 따로 마련하고, 다양한 나무 숭배 사례를 기록했다.

그중 고대 게르만족의 사례는 놀랍다. 게르만족은 나무껍질을 벗겨 나무의 생존에 위해를 가한 자를 영기적으로 처벌했다. '나무껍질을 벗긴 범인의 배짖을 도려내고는 그 배짖 자리와 껍질이 벗겨진 나무 부위가 서로 맞닿도록 못질을 한 다음, 범인의 창자가 모두 나무에 감겨질 때까지 나무 주위를 방글방글 돌리는' 방식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 사람의 살가죽을 나무의 껍질과 동일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형벌이다. 나무를 거의 신과 같은 영험한 존재로 여겼다는 증거다. 나무를 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기며 당산나무 앞에서 제를 지내던 우리 민족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신화도 전설도 사라져 가는 과학의 시대다. 우리 과거의 문화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당산제도 하릴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나마 당산제를 지내는 곳에서조차 도예전처럼 나무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건 아니다. 다만 한 해에 한 번씩 사람

들이 한데 모여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보자고 다짐하는 마을 잔치의 성격으로 당산제는 이어지고 있다.

당산나무 앞에서 치르는 당산제가 사라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다. 한때는 당산제를 '미신'으로 치부해서 '미신 타파'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워 몰아내기도 했고, 유일신을 섬기는 외래 종교의 부흥에 의해 밀려나기도 했다. 또 최근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농촌에서는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길곳을 치를 농약대의 인원이 구성되지 않아 당산제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마을 삼립살이의 내일을 내다보며 마을 사람이 한뜻으로 모여 나무 앞에서 사람살이의 평안을 빌었던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미 사라진 당산제를 복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당산제만큼은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경문화의 귀중한 문화 자산인 당산제와 당산나무가 더 오래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설날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한수원 한빛원전 피해 범위 축소했다니

전남도와 영광군 및 영광군 수협이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에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군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한 것은 3년 전이었다. 당시 용역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추진했다. 주민들은 "15년 전인 2005년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해양연구원에 56억 원을 주고 말길 '영광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용역 결과를 납득하기 힘든 만큼 지자체 주도로 재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15년 전의 한수원 축 용역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당시 한수원은 복사열을 반영해 온배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산정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 범위가 축소돼 어떤 보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수산과학연구원 측에 따르면 '복사열은 원전이 건설되기 전부터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으로 고려

해서는 안 되는 요소'이며 이를 적용한 사례는 영광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당시 한수원 축 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연구원은 2002년 중간 보고서를 내놓을 때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거리(자연해수보다 1도 상승)를 29.7km로 했는데, 정작 2005년 최종보고서에는 20.2km로 줄어 발표됐다. 한수원은 이러한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어업 피해 범위를 확정하고 보상에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번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용역은 15년 전 한수원이 의뢰해 내놓은 용역 결과와 너무 달라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탈(脫)원전' 분위기 속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한수원 측은 이번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지역민과 낯선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사회 환원금 제때 제대로 써야

광주시가 롯데마트 매장의 무단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롯데쇼핑이 납부한 사회 환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받은 5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용처를 정하고도 집행하지 않았는가 하면, 환원금 집행을 위한 용역에는 2억 원의 거금을 사용해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롯데마트를 운영하면서 광주시가 승인한 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지난 2015년 드러났다. 당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롯데쇼핑 측은 무단 전대 시설 철거와 함께 2016년부터 10년간 13억 원씩, 모두 130억 원을 환원하기로 광주시와 약정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 협의회를 꾸려 환원금 가운데 매년 위기 청소년 지원에 10

억 원, 청년 주거 복지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4년간 롯데쇼핑이 낸 환원금은 모두 52억 원. 하지만 이 중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비 28억 3000만 원은 용처가 정해져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한 채 청소년 육성 기금으로 예치 중이라는 것이다.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에 2억 원을 집행한 것도 논란거리다. 용역 내용 중 과거 통계나 자치단체 정책 내용 비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전체 사업비에 비해 용역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광주 지역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이들을 지원할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도 집행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광주시는 롯데쇼핑의 환원금을 적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수(數)의 단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무량대수다. 10의 68승이나 88승 또는 128승이라고 하는데, 불가사의·나우타·아승가·항하사·극·재·정 등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헤아리기 힘든 수들이다. 조(兆)와 경(京)만 해도 엄청난 수다. 억(億)의 만 배가 조, 조의 만 배가 경이다. 1조 원은 100만 원을 100만 일 즉 2740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해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2019년 한국 50대 부자'를 조사해선이 모두 1조 원을 넘었다. 올해로 6년째 병상

장이 가진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 재산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의 결혼으로 네 명의 자녀를 뒀는데, 유산은 이들이 4분의1씩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만큼 유명한 것은 형제 간 분쟁이었다. 5남 5녀 중 맏이인 신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겪은 큰 성공을 거둔 뒤 한 일 국교 정상화 이후인 1968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국내에서는 형제들을 경영에 참여시켰지만 재산이 늘어나며 다툼이 잦아졌고 끝내 서로

공수래공수거

사대질하며 헤어졌다. 그의 병세가 완연해진 2015년에는 아들들이 경영권 쟁탈전을 벌이며 그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1조 원이 넘는 개인 재산과 100조 원의 기업을 일군 그였지만, 말년에는 외롭고 쓸쓸했을 것이다. 설 연휴, 가족의 정과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공수래공수거 (空手來空手去),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한 푼도 저세상으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족과 고향의 가치를 새삼 다시 생각해 본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의료칼럼

거울에 비친 틀어진 얼굴



이경민 전남대치과병원 교정과 교수

그렇다면 이러한 얼굴뼈 및 턱 성장은 언제 일어나는 걸까? 보통 얼굴뼈는 크게 상악이라고 부르는 위턱과 하악이라고 부르는 아래턱으로 나뉜다. 상악은 눈 및 코뼈와 연결돼 있지만, 하악은 실제로 턱관절과 근육으로 연결돼 있을 뿐 상악과는 분리돼 있다. 상악은 하악보다 보다 일찍 성장이 끝나지만, 하악은 좀 더 늦게까지 성장한다. 키와 같은 일반적인 신체 성장은 여자의 경우 초경 후 1년 이내에 성장을 완료하고, 남자의 경우는 보통 중학년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급성장을 한다. 이러한 신체적 급성장 시기에 얼굴뼈도 같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턱은 좀 더 늦게까지 성장하므로 교정 의사들은 아래턱 성장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

얼굴이 틀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얼굴뼈 성장은 좌·우측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좌·우측이 동일한 비율로 동시에 일어난다면 얼굴의 비대칭이 생길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얼굴뼈의 성장 특히, 아래턱이 오랫동안 성장을 지속하면 주걱턱이라고 불리는 하악 과성장의 양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좌우측이 불균형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얼굴의 비대

칭이 생긴다. 따라서 주걱턱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얼굴의 비대칭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A양처럼 본인의 차이가 고르지 않다고 뼈뺀어서 얼굴이 틀어져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굴 비대칭의 근본 원인은 이러한 비대칭적인 얼굴뼈 성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턱 성장이 정상인 사람들은 비대칭이 전혀 없는 것일까? 어느 정도까지가 치료 대상인가?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의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후 얼굴 비대칭 정도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좌·우측으로 약 2도 이내로 틀어져있는 비대칭은 정상으로 간주한다. 정확히 얼굴이 대칭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2도 이상의 틀어짐이 관찰되는 환자들은 무조건 얼굴이 틀어져 보이는 걸까? 그렇지 않다. 교정 의사가 방사선 사진으로 분석하는 얼굴의 비대칭 결과는 얼굴 뼈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얼굴의 비대칭은 연조직 즉, 살이 덮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얼굴뼈의 비대칭이 있더라도 얼굴의 연조직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정도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얼굴

뼈의 비대칭 정도가 심해 연조직이 가려주는 효과가 의미 없다면, 비로소 A양처럼 거울을 봤을 때도 뚜렷하게 비대칭이 관찰되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얼굴의 비대칭을 진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 위턱과 아래턱을 수술할지 아래턱만 수술할지 교정 의사 및 수술 의사와의 정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후 행해지는 턱교정 수술은 일부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미용 목적의 수술과는 차이가 있다.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틀어져 보인다고 생각되면 고민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설 연휴 남도에서 따뜻한 정 나누길



정찬균 전남도 지사행정국장

곳곳에 새 생명이 태어나 전남 어느 마을에서나 어린 아이 울음이 넘쳐나는 활기찬 동네 풍경도 기대해 본다.

최근 마·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지역 위기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명절 분위기가 사뭇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전보다 세상은 편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늘진 이웃이 많다. 특히, 우리 전남은 어르신과 장애인 비율이 높고 다문화 가정 같은 취약 계층도 꾸준히 늘고 있어 설 명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남도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 의원 등이 사회 복지 시설 등 486개소, 1만 3635명에 대한 위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6000세대를 위문하고, 공직자 봉사단체에서도 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는 자에게도 그 향이

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도민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웃을 스스로 찾고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마음의 향이 항상 묻어나는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이번 설 명절은 일상사의 모든 근심과 걱정 떨쳐내고 넉넉한 마음으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전남도에서는 설 연휴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교통과 재해, 보건, 위생, 환경 업무와 관련한 비상 대책에 나서 귀성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는 1일 기준 호남선 2회, 전라선 2회를 증편 운행하며, 시외직행 버스 52개 노선 147회, 고속버스 56개 노선 141회를 증편 운행한다. 여객선도 목포·여수·완도 3개 권역에 400여 회 증편 운항하며,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5곳을 임시 개통한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종합 여객터미널, 판매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 138개소에 대한 안전 점

검을 이미 실시했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6개 소방서와 항공대가 24시간 출동 대기하도록 했다.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 의료 기관 38개소, 보건소 22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권역응급 의료센터를 비상 진료 기관으로 지정·운영해 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귀성객의 대이동에 따른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연휴 기간 중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가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해 차단 방역 및 대주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동안 생활 쓰레기를 중점 수거하고, 명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면서 도민 실생활에 중요한 급수 대책반도 운영해 도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에 유의하고 주위를 잘 살펴 훈훈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경자년에는 모두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를 기원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일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